데스크시각

김미은

메이홀과 영상복합문화관

얼마전 취재를 위해 쇠락한 광주 도심 인쇄 골목 초입에 위치한 5층 짜리 건물을 찾았다. '메이홀(May hall)'이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공간이었다.

전시실과 커뮤니티 공간인 아지트, 강좌가 열리는 강당으로 이루어진 '메이홀'을 만든 이들은 '따뜻한 모임' 회원 15명이다. 관장을 맡은 임의진 목사를 비롯해 화가 한희원씨 등 예술가와 사업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추렴해 3개층을 임대했다.

시민이 주인인 공간

1일 공식 개관을 기념해 한희원씨의 개인전을 여는 '메이홀'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린다. 회원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안목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예술가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게 일상이 되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 '메이홀'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 건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을 취재한 후여서 였을 것이다. 복합관은 광주시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지만 지난 2010년 개관 초기부터 애매한 컨셉으로 우왕좌왕했었다.

건물 자체는 광주시건축상을 받는 등 그럴듯하지만 정작 건물의 쓰임새는 없는 곳, 최근에는 어렵사리 공모를 통해 따낸 예술영화관 상영권까지 반납할 정도로 기획력이 없는 곳이 바로 영상복합문화관이다. 정확한 컨셉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관주도 문화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최근 들어 민간인들이 중심이 된 문화공간들이 눈에 많이 띈다. 문화 기획자 정유진씨가 전당 인근 장동로터리에 갤러리·커피숍·아트숍 등을 갖춘 '쿤스트 라운지'를 열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9월에는 충장로 한복판에 광주대 최덕식 교수가 공연장을 오픈한다. 대인시장에 이어 최근 태국에까지 갤러리를 오픈한 '미테 우그로' 역시 민간 차원에서 일궈낸 공간들이다.

민간 문화단체들의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광주문예회관에서는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가 열렸다. 휴가철인데다 생소한 단체의 공연이다 보니 객석은 절반도 차지 않았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민간 차원에서 50인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그것도 일본·러시아 등 다국적 단원들이 포함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는 건 웬만한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이다. 이날 아름다운 선율이 인상적이었던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와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며 이 오케스트라가 좌초하지 않고 오래도록 순항하기를 바랐다.

연주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광주시립극단의 공연이었다. 24년만에 재창단된 시립극단은 '세익스피어 in 광주'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다시 만났다.

이틀간의 공연 중 기자가 관람하지 못한 첫날 무대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작품의 막을 여는 프롤로그에 출연했었다. 강시장의 결단으로 극단이 재창단됐으니 뭐, 카메오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된 상황이기도 했다.

문제는 마지막이었다. 첫날 상황을 전해준 지인의 말에 따르면 공연 후 배우들의 인사가 끝나자 강시장은 다시 무대에 올라 '한말씀'을 했던 모양이다. 이미 사전에 배포된 공연 팸플릿의 인사말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됐을 터인데 말이다.

무대는 예술가의 영역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장식한 강시장의 모습이 왠지 관 주도 행사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같아 씁쓸했다. '무대'위 주인공은 예술가들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마저 외면당하는 듯해 아쉬웠다.

공룡처럼 커져 버린 광주문화재단의 행보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량도 과중하다.

하지만 문화계에서 칭찬의 소리는 별로 들려오지 않는다. 문화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민간에 맡겨도 좋은 소소한 이벤트까지 직접 진행하다보니 예술단체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주인은 관(官)이 아니다. 도심 전체에 실핏줄처럼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숨쉬는 공간들이며 예술가들이고 시민들이다. 민(民)의 자생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 그들이 놀 수 있도록 판을 벌여주는 것 그게 관이 할 일이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사설

오심 탓에 신아람이 흘린 통한의 눈물

신아람이 멈춰버린 1초 때문에 경기장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심판의 오심 탓에 메달을 도둑 맞은 것이다.

찌르고 막기를 4차례, 그래도 남은 경기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시계는 1초에 멈춰 있었다.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의 찌르기가 성공하고 나서야 주심은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4년에 걸쳐 피땀을 흘려가며 준비한 신아람의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에페 결승 진출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 됐다.

심재성 코치가 강력하게 항의해 30여분 간 심판진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31일 새벽 TV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통을 삭이지 못하고 날을 밝혔다.

AFP통신은 이 경기를 올림픽에서 일어난 주요 판정시비 다섯 사례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첫번째 사례로 거론하면서 '신아람이 흘린 통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AFP는 "제대로 판정이 나왔더라면 신아람은 결승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격에 빠진 신아람은 피스트를 떠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 에스코트를 받고서야 내려갔다"고 전했다.

런던올림픽이 초반부터 판정 논란에 휩싸여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회 첫날 박태환의 부정 출발 오심에 이어 남자 유도 66㎏ 조준호의 판정 번복과 신아람의 오심까지 '오심 올림픽'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도 유독 한국선수단 경기에서 연이어 발생, 배경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자칫 한국선수단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는 박태환 선수의 경우처럼 즉시 항의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오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제소를 통해 정당한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스포츠의 산실인 IOC는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대회 운영을 해야 한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 있을 수 없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지난달 30일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여름철 전력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발전용량 100만kW급인 6호기의 발전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자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이 낙하해 원자로 내에 삽입되면서 자동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고장이 발전소 안전성 영향과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장치 고장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호기의 발전 정지는 우리나라 총 설비 용량의 1.2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장 전력 수급의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잦은 고장에 따른 불안감 확산이다. 지난 4월 핵연료봉에 금(핀홀)이 발생해 원자로 내 방사능 준위가 상승하는 등 연료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제어봉 전송기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다가 이틀만에 재가동됐다.

영광원전에서 발생한 불시 정지 사고는 연평균 4~5건이나 되고,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부주의가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라니 안전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실적 수준은 세계 최고일 정도로 완벽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84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지난해 후쿠지마 원전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전에선 한 치의 실수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점검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김창균

연일 폭염이 기승이다. 삼복더위에는 논두렁의 개구리도 꿈쩍 않고 엎디어 있다는데, 뙤약볕 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나무들도 쓰러지고 싶어 가지를 비튼다는 어느 시인의 비유가 참 제격인 불볕더위가 오히려 반가운 존재는 매미가 아닌가 싶다.

여름 한철을 위해 땅속에서의 10년도 불사하는 매미는 그야말로 여름의 전령사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장자는 '혜고부지춘추(蟪蛄不知春秋)'라 해서,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는 매미를 견문이 매우 좁음에 비유하였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여름밖에 모르는 매미는 여름도 모르는 법이라고 했다. 겨울의 추위가 있기에 여름의 더위가 인식되는 법이니,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을 것이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일까. 곤충의 일생은 알에서 어른 벌레로 되고 어른 벌레가 짝짓기를 해 다시 알을 낳고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 매미는 그렇게 보면 가장 수명이 긴 곤충이다. 하루 만에 죽는다는 하루살이도 애벌레로 2~3년을 산다고 하니, 그저 짝짓기해서 자손을 남기기 위한 짧은 순간을 전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매미의 눈으로 본다면 땅속의 오묘한 삶이 본질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우매함의 표본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식은 새로운 기준이나 가치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가 에디슨사에 근무할 때 미래의 동력은 전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포드는 회사를 떠나 더 블실린더 엔진에 매달려 3년 뒤 모델 A를 탄생시켰고, 결국 자동차 왕으로 등극하였다.

아이폰, 아이패드의 신화를 남긴 스티븐 잡스 또한 생각의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잡스가 이끈 '애플 파워'는 기존에 있는 것들과의 경쟁을 거부하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면서 진화를 주도하는 능력 그 자체였다.

사실 우리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선진국 따라 하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의 특허 논쟁에서 보듯, 이제는 과거의 표준을 대체할 새로운 창조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괴적 혁신은 향후 세계 시장 선도자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국내 한 연구원에서는 호모 디아볼루스(Homo-diabolus)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다. 호모 디아볼루스는 인간을 뜻하는 'Homo'와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라틴어 'diabolus'를 합성한 말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오로지 흥미를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상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습에 대한 저항 앞에는 주위로부터의 고립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틀과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틀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며칠 전 "필통에 들어가지 않는 가위가 미워 발명하게 됐어요."라며 둥근 손잡이 때문에 필통에 들어가지 않는 가위의 문제를 해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초등학생이 있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프루스트는 말한 바 있다. 안정과 조화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말썽꾸러기가 21세기의 장영실, 제2의 스티븐 잡스가 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잔디구장과 월드 스타

정수봉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노래 구절이 아침잠을 깨우던 시절!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인 위안과 희망을 안겨 준 스포츠는 아마도 축구가 아니었나 싶다. 그 당시 아시안컵 대회라도 열릴라치면 동네 주민 모두는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여 마음을 졸였다. 우리나라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 온 국민이 한숨을 내쉴 때면 늘 경기 해설가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 "우리나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저렇듯 형편없고 펠레같은 스타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잔디구장이 없어서"라고….

정말 잔디구장이 없어서였을까? 물론 잔디구장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잔디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아닐까?

이에 대한 해답은 월드스타 차범근 전 감독과 박지성 선수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차범근 전 감독은 우리나라에 잔디구장이 거의 없던 시절에 활동했다. 하지만 불같은 자신감과 도전정신으로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으며 꾸준한 훈련, 수도승과도 같이 절제된 선수생활로 스타덤에 올라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국민에게 감동과 긍지를 안겨줬다.

유럽 프리미어리그 스타 박지성 선수는 알려진 대로 연습벌레다. 그의 일그러진 발가락에서 보았듯이. 다시 말해 월드 스타는 잔디구장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과 그가 흘린 땀의 결정체이다.

뜬금없이 잔디구장을 들먹이는 것은 광주 근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전하기 위해서다.

광주에 온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간다.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광주·전남의 경제인프라가 취약하고 내놓을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걱정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을 무엇일까?

2010년 통계상으로 광주·전남의 인구는 약 32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6.6%를 점하고, GRDP는 80조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약 6.9% 수준이며, 2011년 수출액은 53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9.6% 차지한다.

대개 한 지역의 경제지표는 그 지역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깊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의 외형적 수치는 평균 수준으로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제조업체(5인 이상 고용)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약 4.3%에 불과해 취약하다. 게다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이 전국적으로 381개나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겨우 10개로 전국대비 3%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면 취약한 지역 내 제조업체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을 이전 유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제조업종의 창업을 촉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지자체간의 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지역의 기업을 모셔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지역을 떠나려 하는 기업들을 붙드는 것도 녹록치 않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스스로 지역 내에서의 창업 촉발이 아닌가 한다.

광주·전남지역은 좋은 창업 여건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창업보육센터 27개, 산업단지 95개, 대학 35개, 특성화고 7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6개등 창업지원 인프라가 전국대비 1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인구가 전국대비 7%대이고 제조업 비중이 4%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하다고 본다.

그야말로 그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꿈의 잔디구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우리 지역의 인재는 또 얼마나 우수한가! 남은 것은 오로지 축구의 펠레와 같은 경제계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젊은이의 도전과 땀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목포대에 이어 올해 조선대를 창업선도대학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창업보육센터 확장, 예비기술창업자 지원확대 등 창업 예산을 지속 확대해 우리 젊은이들이 월드 기업가의 꿈을 펼쳐 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옛날 골목길에서 공을 굴리던 펠레처럼 지금 어딘가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 지역 젊은 창업가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멀지 않아 글로벌 잔디구장에서 펼쳐질 월드 스타의 아름다운 활약상에 가슴이 뿌듯해지는 희망의 빛을 본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無等鼓

살타는 냄새

지난 1월 16일 오후, 해맑은 얼굴에 턱수염을 기른 4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서울 남산의 한 건물 앞에 섰다. 방송사 촬영팀과 함께 건물 바깥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남자는 문득 손을 뻗어 한 곳을 가리켰다. 땅 위로 비쭉 삐져나온 작은 창문이 보였다. "여기가 바로 내가 고문 받던…" 갑자기 남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코가 빨개지고 어깨가 들썩이더니 남자는 선 채로 엉엉 울어버렸다.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 강용주(49)씨 이야기다. 지난 1985년 여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구미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된 강씨는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에서 조사실로 사용했던 이곳 지하 1층 좁은 방에서 30여일간 거의 매일 고문을 당했다.

강씨는 "그 창문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짓찧던 27년 전으로 되돌아가버렸다"며 "숨이 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눈시울을 훔쳤다.

강씨의 말처럼, 고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다. 펄떡이는 심장에 찍힌 작살처럼, 고문으로 생겨난 마음의 상처는 죽어서야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악몽'이다.

고문은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굴복시킨다. '압도적인 힘을 동원해 원치 않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시키고 개인의 존재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다.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 귀국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구타와 전기고문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소·돼지처럼 손·발이 묶인 채 자신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비명을 질러대야 했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2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내 영혼이 '쨍' 하고 금가는 소리를 들었던 그때에 갇혀 살고 있다"는 강씨의 독백이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되풀이되도록 놓아두어선 안 된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redplane@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